

설 교 노 트

성경: 마태복음 21:12-14
제목: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14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목 회 칼 럼

교회전화로 타지역의 성도님들께서 전화를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한 적도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두 번의 통화를 통해 누린 은혜와 다짐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작년 12월 경에, 플로리다에 사시는 자매님께서 교회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연히 우리 교회 주일예배를 영상으로 접하셨습니다. 한국영화 “클래식”의 한 장면을 소개했던 설교를 자매님께서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남자주인공이 자신의 외투를 우산처럼 펼쳐서 여자주인공과 자신의 머리 위로 올려서, 두 사람이 빗속을 뚫고 달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그녀의 고단한 인생 위에 펼쳐지고, 그녀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계심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코로나상황에서도, 위로와 치유의 복음이 더욱 선포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둘째, 3월 2일(화) 오전에 동부에서 거주하시는 분께서 교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민자의 눈물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분은 헌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교회의 예배 참석을 중단했습니다. 이후에 미국 교회에 출석했지만, 영어에 익숙하지 않기에, 그 성도님은 예배의 은혜와 성도간의 교제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실은 어렵지만, 가정에서 설교 CD로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같은 하루 하루를 은혜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제게 당부하는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그분의 바램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성령충만하고, 기쁨부으심이 있는 교회를 오늘도 소망하며,

박주영 드림

3월 행사일정

3.07 (주일)	3.01(월) 삼일절
3.14 (주일)	Daylight Saving time 시작
3.21 (주일)	3월 정기 당회
3.28 (주일)	종려 주일
	(2/17~4/3 사순절)

공 동 체 성 경 읽 기 표

3.07(일)	3.08 (월)	3.09 (화)	3.10 (수)	3.11(목)	3.12 (금)	3.13 (토)
출 13-15	출 16-18	출 19-21	출 22-24	출 25-27	출 28-29	출 30-32

예 물 봉 헌 하 신 분 들

십일조 헌금 : \$ 1,562.00
김현진 김정화 박주영 이경희 이애경 윤현희 장영애 정연화 장종순
최기환 무명

감사 헌금 : \$ 600.00
김용래 김현진 문현욱 장영애 전인애 최기환

주일 헌금 : \$ 521.00
김선중 김진희 김현남 김현진 김혜남 박주영 박소영 이선화 이승재
이옥주 이원호 전인애 최민호 황기자 현주 Cooper Anne Park
Rebecca Miller 무명

계절 헌금 : \$	선교 헌금 : \$ 110.00 오정희 이애경	건축 헌금: \$
청소년부 : \$ 45.00	주일학교 : \$ 5.00	총헌금합계 : \$2,843.00